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3·1절 제 79주년 기념주일

‘애국’의 참뜻을 되새기는 3·1절

3·1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된 지 9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것으로 강점 후 노골화되는 일제의 혹독한 식민정치에 반발하여 일어났던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이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은 이 운동을 불붙이는 데 앞장 선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첫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발발한 이 운동이 서울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그렇게 적극 참여한 것은 두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무엇보다 나라를 찾으려는 민족의 식적인 측면이다.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운동에 깊이 동

참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이다. 강점 이후 일제는 105인 사건과 사립학교규칙 개정, 포교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기독교신앙을 직·간접적으로 탄압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적인 분노에다 신앙적인 동기가 겹쳐져서 이 거족적인 민족운동에 앞장 섰던 것이다. 그 당시 성도들은 3·1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고난이 예고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앞장 섰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함을 느끼는 때에 맞이하는 제 79주년 3·1절 기념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간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 참된 애국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

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배움을 입었던 그 심정으로 회개하고 현재의 민족적 위기가 국민 의식개혁과 갱생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순례자 컬럼 ✧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 명하시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사랑하라 권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영생을 누릴 사람이다. 세상 모든 것이 그대를 버리고 경시한다 해도 주님은 그대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대가 괴로워 하는 것을 좌시 하지 않은 분이시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만 단단히 붙잡고 그대 자신을 주님의 신실하심에 맡기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은 것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되신 주님 품 안에 거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때문이다.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30일 개강

제1교시	제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 배경식 교수(한일신대)
	경건과 리더십 김기홍 교수(아신대)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 민경배 교수(연세대)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 이만열 교수(숙대)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 고무송 목사(열린천원교회)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 최래옥 교수(한양대)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 정장복 교수(장신대)
	건강과 절제생활 김일순 교수(연세대)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 관리 이연옥 이사장(서울여대)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 이상근 원로목사(대주제일교회)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3학기 프로그램

요청되는 봉사의 손길

제 1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 30일(월) 강남YMCA대강당에서 “경건과 절제”라는 주제로 시작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전국에서 오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사준비 및 배식, 집꾸리고 이동하기, 강의실 의사 설치, 방송실 점검,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안내, 등록접수,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청소, 등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교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봉사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517-7651)으로 하면 된다.

3월 행사개시판

일자	행사
1일	3·1절 기념주일
1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28일	육사 세례식 주관
29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30일	13학기 목회자세미나개강 (2시 YMCA 대강당)
30일	서울성경대학 사사기반, 에스더반 개강
31일	서울성경대학 히브리서반, 빌립보서반 개강

이사야

타락한 자가 받은 경고

3장 8 - 15절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만죄를 지었습니다. 오만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으면서 굉장한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명을 주셨으며 선지자를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축범함

눈을 축범했다는 말은 가시로 찢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눈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고, 구원은 메시아로만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는데 유대 백성들은 말로써 반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축범한다는 말은 덤빈다, 도전한다의 뜻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행위로 덤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지은 피조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타난 영광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눈을 찢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름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잠27:17). 이 말씀은 미련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로 거역하고 행실로 거역하면서 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로서 유대 민족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2. 헛된 자랑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도 안색이 변함이 없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

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도 안색에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숨긴 것 같으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치 소경과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여 자기 죄를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경고입니다. 죄를 지은 수치심도 없고 경망스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를 삼키게 되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의 얼굴을 땀물에 갈아버립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 백성은 불행한 백성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

“여두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이 자취하였도다...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꺾어버리니라...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사3:8 - 15).



이종운 목사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소돔과 같다고 했습니다(9절). 소돔은 음란한 죄와 포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의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죄를 감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발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노가 촉발된다고 했습니다.

3. 지도자의 타락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벌을 주시지 않고 때로 간접적으로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능력이 없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자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땀을 흘리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14 - 15절).

시대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백성들이 죄에 머물고 빠져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그런 지도자가 역량을 발휘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국가나 지도자를 위해 쉬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장로님들은 바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교회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께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찢는 죄를 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지어 그같은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 대학부 수련회에서

■ 초등부 성경학교에서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으로도 ...

이승헌 (대학부)

▶ 수련회 보고

대학부 겨울 수련회가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2박 3일 간 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 단순한 프로그램들로 강행군을 했다. 수련회는 끝까지 없이 오직 말씀·찬양·기도·식사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무척 따분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가 깊이 새겨졌다.

박귀환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웃에게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올해 수련회의 주제를 요약해 주셨다. 그리고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믿음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셨다.

또 이종윤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특강을 통해 우리는 영성이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더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중심된 생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천

국 중심 생활, 적극적으로 선 즉 공동체 즉 교회와 예배에서 찾게 되는 선을 행하는 능력있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찬양시간에는 우리는 찬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세족식과 애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했고, 새벽 1시까지 서로 돌아가며 인사하는 시간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 은혜나누기

· 형제 자매의 찬양 모습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 김경숙 -

· 알차고 긴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화했습니다. - 김용호 -

· 회개하는 자세로 이제 주님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 이승준 -

·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 조현숙 -

· 입대 전 마지막 수련회.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듣고 이를 실천할 힘을 얻었습니다. - 조남현 -

"친구와 함께"

고요한(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았다. 영화 장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부터 시작됐다. 말씀으로만 들었던 요단강, 나와 이름이 같은 요한, 제자를 부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며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는 온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이곳에서 있는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에서만 접하던 예수님의 행적을 영화로 보니 더욱 생생했고 감동적이었다. 더 감사한 일은 내 친구 은경이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내 힘으로 잘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영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를 본 은경이는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게 소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경이의 아빠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경이 아빠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처럼 은경이와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믿고 싶다.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어요"

김보연(초등부)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여러가지 기적을 보여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 저도 목숨까지는 못 주더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청년부수련회를 마치고

정지은(청년부)

저녁 시간에 거둔 감동의 열매

교회학교 중에서 청년부의 수련회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

예년과는 달리 평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갖기로 하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이 IMF 한파로 인해 강원이나 뭐니 해서 모두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긴장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던 이상의 열매를 보여주셨다. 이번 수련회는 "새

최창모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

첫날부터 평소 집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든 가운데 박귀환 목사님은 지금 세대가 안고 있는 현실안주의식과 신앙체험 상실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며 이 비극을 치유하는 길은 회개하고 도전과 비전을 갖고 회생을 각오하는 삶을 사는 청년의 책임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인 둘째날에는 이종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한 귀한 말씀으로 청년의 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 마지막 날, 최창모 교수님은 그리스

백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주제로 이종윤 목사님, 박귀환 목사님, 진대 히브리학과

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쉽고도 실제적인 말씀을 주셨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았던 말씀을 입체적인 강의를 통해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저녁 식사때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부감 권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사 드린다.

청년부에서는 올해 배가운동을 펼치고 있다. 토요일 집회에 많은 청년들이 "바쁘다, 다음에..."라는 안일한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함께 참여하여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청년의 시절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길 기도한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대학부= 1일(주일) 오후 1시부터 대학 부실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갖는다. 대학부회원의 자격은 1974년생부터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생까지이다. - 이승현 기자 -

◇ 청년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21일(토) 집회 후 강남역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정치는 기자 -

◇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박정선 집사는 23일(월)~26일(목)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작곡가연맹이 주최한 '한·일 작곡가의

밤'에 한국 대표로 참석, 작곡 발표를 했다.

◇ 임마누엘찬양대= 대장 김상철 장로는 한미우호사절단장으로 23일(월) - 3월 2일(월)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또 서기로 봉사하던 이태원 집사가 업무차 3개월 간 해외 체류하게 되어 임시 서기에 유신 집사가 수고하게 됐다. -허숙 기자 -

◇ 제 2교구= 조선정 성도(전완순 권사 딸)는 중동교사 임용고시에서 서울지역 수석을 차지했다.

순례길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정수지(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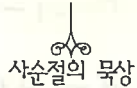


저는 강아지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아파께 많이 졸랐지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파트에서는 기를 수 없단나요? 그래도 전 단념하지 않았어요.

제가 4학년 때 공과책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제목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었고 내용은 어느 한 남자가 자기 집 뒤에 있는 뒷산이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남자는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따라 열심히 뒷산이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지 꼭 40일이 되는 날 새벽에 뒷산이 없어지게 되었네요. 공사를 하게 되어 흙차가 산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요.

저는 생각했어요 강아지를 키우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40일이 되는 날 이루어질지

도 모른다고요. 전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달력에도 기도드린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로부터 강아지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참 섭섭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무심코 달력을 보니 오늘이 40일째였어요. 저는 아파께 달려가 말씀드렸더니 아파는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지금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 인형을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달라고 하기 쉬우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기도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파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는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십자가를 사랑함에 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많거니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눅22:42).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편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해관계나 이기심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혀 내려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응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욥1:9). 그러한 사람이 지닌 가치는 진실로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잠31:10).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보다 더 부요하고, 더 능력이 있으며,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목회자동정

- ◆이종윤 목사는 2일(월) - 3일(화) 서울서노회 목사수련회 강사로 강연, 5일(목)엔 한기총교회발전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순환 목사 연락처 변경(☎ 3446 - 8858)

오늘 점심식사는 이남호 장로·여욱기 권사 가정에서 제공

■ 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2. 교회의 3월 행사를 위해
3. 사순절 기간 동안 참된 회개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